

[보도자료] 쿠팡,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로켓배송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여건 강화를 위한 MOU 체결

2023. 3. 16.

- 교통사고 분석정보 활용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관리 강화에 나서
- 안전교통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업 진행

2023. 3. 16. - 쿠팡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로켓배송차량 운전자의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에 나선다.

16일 오후 양 기관(쿠팡-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북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쿠팡 안전관리 부문 유인종 부사장과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배송업무 종사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감소 등 보다 안전한 배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쿠팡은 일부 배송 차량에 DTG(모바일 운행기록계)를 장착하고 수집된 운행정보와 운전 습관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차량과 운행, 운전자 정보를 분석하여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쿠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자료를 지원받고, 교통사고 통계자료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은 쿠팡과의 민간협업을 통해 교통안전관리 노하우 및 교통예방 우수사례를 유통물류업계에 공유하여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인종 쿠팡 안전관리 부사장은 “쿠팡은 쿠팡친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쿠팡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로켓배송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여건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유인종 쿠팡 안전관리 부사장(사진 오른쪽)과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사진 왼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